ᄆᆞᆫ 목ᄉᆞ와 성도의 복된 관계

성경말씀: 빌1:1-10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강해 시작, 바울의 옥중 서신, 유언, 다양한 주제, 하나도 뺄 것이 없다.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복된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및 자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목사의 직무와 자격

구약시대 가정, 국가, 이스라엘, 신약시대 교회
이런 기관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집단이 구성되면 리더와 폴로우어가 반드시 생긴다.
성경은 이것을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목사와 집사를 주심(1:1), 빌립보서는 바울의 목회자적 측면에서 이야기
오늘은 주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그러나 모든 리더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 딤전3장, 딛1장은 감독에 대해 이야기한다.
감독, 장로, 목사 다 동일한 직무 수행자를 나타내는 말이다. 감독은 로마, 장로는 유대, 목사는 기능
무어라 부르든지 다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자격 조건은 딤전 3장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행20:28; 벧전5:2-3)
단수 목사, 복수 목사, 목사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서 이미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

빌립보서 1장 1-10절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목사의 자세를 심히 잘 보여 준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성도들이 모금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위로함.
그러자 사도는 10여 년 전의 과거를 기억하며 편지
편지 서두를 보면 목회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1. 성도들로 인해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였다(3). 나의 경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 노력하고 있다. 감사의 이유: 이들 구원, 수적 증가, 성장 감사, 아이들 성장 감사
   오늘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목사로서의 책무를 겨우 최소한으로 하는데도 믿고 도와주셔서 감사
   또한 신실하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 목사가 재정 걱정하지 않고 주의 일 하게 해 준 것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땅에서의 기쁨과 하늘에서의 기쁨으로
   서창 캠퍼스로 이사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다.
2.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간구(4), 목사의 당연한 직무,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 가정
3.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복음이다(5). 복음(롬1:16),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전15:3-4).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동의하며 교제(파트너), 단순히 커피 마시는 교제가 아니다. 이런 것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파트너, 동일한 성경, 동일한 복음, 동일한 목표
   그것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 가운데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포함됨, 대단히 귀중한 말씀
4. 바울의 확신: 선한 씨는 바울이 뿌렸지만 그 일 자체는 그리스도의 일(6),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선한 일은 복음의 교제, 파트너가 된 것, 루디아, 간수 등 미약 그러나 큰일로 발전, 여기까지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 구원, 그 이후 교회, 풍성한 열매
   목회자의 자세: 겸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5.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7). 그 이유 로마 감옥의 고통을 나눔, 목사의 고통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사랑과 기도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내 뒤에 와서 목회할 사람들, 이끌 사람들
   복음 변호 확증에 같이 참여, 우리 교회의 일: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회, 바른 성화, 바른 사회, 같이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개인의 보상, 여기에는

교회로 같이 하며 섬긴 것에 대한 보상도 나누리라 믿음

6. 그 결과 그들을 그리워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창자라는 뜻, 사랑 표현, 삽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의 기도

부모는 항상 자녀들 위해 기도, 나도 마찬가지

바울의 말: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전4:15-16). 만 명의 스승, 잠시 잠깐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 차이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

실제 부모/자식은 살과 피를 나눈 관계, 바울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부모 자식으로 표현함

부모의 심정(고후12:14-16),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목사

이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빌립보 성도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잘되기를 바란다. 목사도 마찬가지

1.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함: 즉 성장하기를 기도함,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그런데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이해하는 사랑이 증대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어야 한다. 교리가 확실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야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진리의 영, 구분, 분별할 줄 안다.

   어린아이: 개, 고양이, 쥐, 구분이 안 된다. 차도 구분이 안 된다. 성장하면서 구분도 하고 위험도 알게 된다. 길 건너며 앞뒤 좌우 살펴보고 간다.

2.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10):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리스도의 성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뛰어난 것들을 시험해 본다. 자동차 시험장, 그런지 안 그런지

   확실히 좋은 것들을 알게 되면 추구한다(4:8). 그 결과 성실한 사람,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휴거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 역시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 아닌가?

3. 그 결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열매를 일로만 생각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갈5:22-23), 성품의 변화

   그 다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일

   그 일의 특징: 소리가 없다. 어떤 나무도 소리를 내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광

   우리 주님의 말씀(마5:13-16):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의 목표

4. 이런 일은 억압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좋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좋아야 한다. 그러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 만족감과 행복감이 생긴다. 이것이 넘쳐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다.

   그 이후에 목사의 양육을 잘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튼튼한 아이로 성장해야 한다.

   구분하고 분별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아이, 그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아이, 이것 우리 교회의 목표

목사의 소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 고후1:14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러므로 같은 교회를 하면서 싸우면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도 큰 다툼, 있을 수 있다. 심각한 다툼이 있으면 분리해야 한다.

나의 목표는 1:24,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가르치기만 한다.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서야 한다. 이것이 신약 교회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길

교회와 목사를 의지하되 동시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모 자식처럼 부활의 날에 서로 기쁨으로 만나야 한다.